

# 惠能의 無念·無相·無住義

金 夏 雨\*

## 〈目 次〉

- |            |           |
|------------|-----------|
| I. 序 言     | IV. 無 相 義 |
| II. 無 住 義  | V. 結 言    |
| III. 無 念 義 |           |

## I. 序 言

惠能(638~713)은 中國唐代 禪宗의 六祖로서 널리 알려진 大禪師·禪思想家이다,

唐의 文物中心地에서 멀리 떨어진 嶺南에서 老母를 侍奉하며, 「賣柴」의 生業으로 「貧乏」한 農家를 꾸려나간 모습이 그의 出家前 生活모습이다. 五祖 弘忍의 佛門에 들어간 後 방아짚는 일. 僧俗에게 授受하는 言行에서 忠直하고 敬愼한 모습을 보인다. 弘忍의 法衣를 이어 받은뒤 南行에서 危難을 겪으면서도 普敬·道行의 精神을 宣揚한다. 僧俗을 接하여 轉迷開悟하는 法語는 읽기를 거듭할수록 그 奧義에 敬嘆할 뿐이다.

惠能의 禪思想을 窺知할 수 있는 <壇經>은 여러 異本이 있다. 즉, 敦煌本·興聖寺本·德異本·宗寶本 등이 있다. 이중 敦煌本은 最古本이고 널리 流布되어 온 것은 德異本과 宗寶本이다. 思想內容上 諸異本간에 別

\* 哲學科 教授.

差異가 없고, 品目の 分類에 조금 다른 品名의 分類가 보일 뿐이다.

拙稿를 作成함에 德異本과 <金剛經六祖口訣>을 依據하고, 惠能思想의 無念·無相·無住義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接近은 分에 넘치고 堪當하기 어렵지만 한발자욱이라도 近接하려는 마음으로 試圖한 것이다.

<六祖壇經><sup>1)</sup> 定慧品第四에 「無念」을 「宗」, 「無相」을 「體」, 「無住」를 「本」으로 삼는다고 한다.

「善知識。我此法門。從上以來。先立無念爲宗。無念爲體。無住爲本。」

「善知識」이여 나의 이 「法門」은 위로 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無念」을 세워 「宗」으로 삼고, 「無相」을 「體」로 삼으며, 「無住」를 「本」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에 이어 三者(無念·無相·無住)의 內容이 <壇經>에 叙說된다. 卽, (1) 「無相」이란 것은 「相」에 있으면서 「相」을 떠난 것이고(「無相者, 於相而離相」). (2) 「無念」이란 것은 思「念」에 있으면서 思「念」이 없는 것이다(「無念者, 於念而無念」). (3) 「無住」란 것은 사람의 「本性」인 故로 「世間」의 「善」과 「惡」, 「好」와 「醜」, 내지는 「冤」과 「親」, 「言語」의 接觸·「刺」戟·「欺」瞞·鬭「爭」 「時」에도 「空」으로 여겨서 「酬」와 「害」를 「思」念하지 않고(「無住者, 人之本性. 於世間善惡好醜, 乃至冤之與親, 言語觸刺欺爭之時, 並將爲空, 不思酬害」), 「念念」중에 「前境」을 「思」念하지 않는 것이다(「念念之中, 不思前境」). 萬「若」 「前念」·「今念」·「後念」이 「念念相續」하여 「不斷」하면 「繫縛」이라 「名」한다(「若前念今念後念, 念念相續不斷, 名爲繫縛」). 그러나 「諸法」에 있어서 「念念不住」하면 곧 「無縛」이다. 이것이 「無住爲本」이다(「於諸法上, 念念不住, 卽無縛也. 此是以無住爲本」).

(1) 「於相而離相」, (2) 「於念而無念」, (3) 「人之本性」·「念念不住」의 「無縛」 등으로서 三者의 內容을 들어 定義한다. 「於相」·「於念」·「念念」

1) 德異本.

의 轉悟狀況이 提示된다. 色法等の 分別·實有見을 넘어서는 離相·無念·不住의 實現은 悟法の 狀況에서 얻어진다.

轉悟交涉내지 悟法을 隔離한 「離相」·「無念」·「不住」義를 指謂하지 않는다.

## Ⅱ. 無住義

「人之本性」이 「無住」性이므로 善惡·二元論的是非를 넘어서 「無縛」義가 提示된다. 「前念」(過), 「今念」(現), 「後念」(未)이 「相續」하여 「不斷」함으로 「繫縛」의 狀態에 놓인다. 이러한 「繫縛」을 벗어날 수 있다는 所以는 「人之本性」이 「無住」性란에 있을 것이다. 벗어나는 「無縛」의 方式에 있어서 有所得心<sup>2)</sup>의 實有見에 依하지 않는 것이다. 「不思」내지 「念念不住」라는 無所得心の 方式으로 「無縛」에 이르는 것이다. 過·現·未「心」의 「自絶」내지 「住心」의 「自絶」은 바로 「人之本性」의 「無住」義를 提示한다. 따라서 思量心の 無自性·空·緣生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頓悟入道要門論〉卷上에 過·現·未心の 「自絶」을 叙說한다. 卽, 「汝若欲了了識無所住心時, 正坐之時, 但知心, 莫思量一切物. 一切善惡, 都莫思量. 過去事已過去, 而莫思量, 過去心自絶, 卽名無過去事. 未來事未至, 莫願莫求, 未來心自絶, 卽名無未來事. 現在事已現在, 於一切事但知無著. 無著者不起憎愛心, 卽是無著, 現在心自絶, 卽名無現在事, 三世不攝, 亦名無三世也. 心若起去時, 卽莫隨去, 去心自絶. 若住時亦莫隨住, 住心自絶, 卽無住心, 卽是住無住處也.」

萬「若」자네가 「了了」히 「所住」가 없는 마음을 悟「識」할때는, 「正坐」

2) 有所得心으로 困한 繫縛義가 吉藏의 〈淨名玄論〉卷三에 叙說된다. 卽, 「又謂. 凡夫有煩惱. 故起有見. 謂聖無煩惱. 故起無見. 故於若聖若凡. 令起有無二見. 故凡聖皆爲縛.」 「又我師與皇和上. 每登高坐. 常作是言. 行道之人. 欲棄非道求於正道. 則爲道所縛. 坐禪之者. 息亂求靜. 爲禪所縛. 學問之徒. 謂有智慧. 爲慧所縛. 復云. 習無生觀. 欲破洗有所得心. 則爲無生所縛. 並是就縛之中. 欲捨縛耳. 而實不知皆是繫縛.」(大正藏三八 874頁中)

할때 「但」只 마음만을 알고, 「一切」의 「物」을 「思量」하지 마라. 「一切」의 「善惡」모두를 「思量」하지 마라. 「過去」의 「事」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임으로 「思量」하지 말며 「過去心」은 「自滅」하는 것이다. 곧 「過去事」가 없다고 「名」한다. 「未來」의 「事」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므로 「願」하지도 「求」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未來心」은 「自絕」하는 것이다. 곧 「未來事」가 없다고 「名」한다. 「現在」의 「事」는 이미 「現在」하는 故로, 「一切事」에 있어서 「但」只 「無著」만을 알아라. 「無著」이란 것은 「憎」·「愛」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곧 執「著」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現在心」이 「自絕」하는 것이다. 곧 「現在事」가 없다고 「名」한다. 「三世」(過·未·現世)에 包「攝」되지 않는다면 또한 「三世無」라 「名」한다. 萬「若」마음이 「起去」할 때라도 곧 따라서 가지마라. 그러면 「去心」이 「自絕」하는 것이다. 萬「若」「住」할때도 또한 따라서 「住」하지마라. 그러면 「住心」이 「自絕」하는 것이다. 곧 「無住」의 「心」이고, 「無住處」에 「住」하는 것이다.

三時내지 三世의 可得義는 有所得知의 輪廻의 住著을 意味한다. 이에 反해 三世의 不可得義<sup>3)</sup>는 無所得知(無知體·無有見)의 「無住」義를 提示한다. 곧 三際心내지 三世心の 分裂·分別所縛을 遠離하는 不可得義<sup>4)</sup>로서 人性의 無住義를 提示한다.

3) 《傳心法要》에 「三世俱捨」義·「莫認三際」義로서 「三世」내지 「三際」의 不可得義를 提示한다. 即, 「善薩心如虛空, 一切俱捨. 過去心不可得, 是過去捨, 現在心不可得, 是現在捨, 未來心不可得, 是未來捨, 所謂三世俱捨.」 「念念不見一切相, 莫認前後三際. 前際無去, 今際無住, 後際無來. 安然端坐. 任運不拘, 方名解脫.」

4) Ārya-Ratnakūṭa-Sūtra(聖寶積經)에 三際心の 不可得은 無自性이며 生·滅(自性의)이 없는 것이다 한다. 即, cittaṃ hi kāśyapa parigavesyamānaṃ na labhyate. yanna labhyate tannopalabhyate. yannopalabhyate tannaiva atitaṃ na apāgataṃ na pratyutpannam. yannaivātitaṃ anāgataṃ na pratyutpannam, tasya nāsti svabhāvaḥ. yasya nāsti svabhāvaḥ, tasya nāstyutpādaḥ. yasya nāstyutpādaḥ, tasya nāsti nirodhaḥ. iti vistarāḥ. (Mādhyamika-vṛtti p.45) 《金剛經》, 一體同觀分第十八에 三心(過現未)不可得을 明示한다. 即,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이 「三心」의 「不可得」義에 關한 六祖의 《口訣》에 「過去心不可得者. 前念妄心. 暫然已壞. 追尋無有處所. 現在心不可得者. 眞心無相. 憑何得見. 未來心不可得者. 本無可得. 習氣已盡. 更不復生. 了此三心皆不可得. 是名爲佛」이라 한다.

無住義는 住「心」이 自絶함에 無住의 「心」을 意味하고, 「心」이 「無住處」에 住함을 提示한다.

〈頓悟入道要門論〉卷上에 「住無住處」義를 밝힌다. 即,

「問, 心住何處即住. 答, 住無住處即住. 問, 云何是無住處. 答, 不住一切處, 即是住無住處. 問, 云何是不住一切處. 答, 不住一切處者, 不住善惡有無, 內外中間, 不住空, 亦不住不空, 不住定, 亦不住不定, 即是不住一切處. 只箇不住一切處, 即是住處也. 得如是者, 即名無住心也. 無住心者是佛心.」

물기를, 「何處」에 「住」함이 곧 「住」(참된)인가? 「答」하되, 「無住處」에 「住」함이 곧 「住」이다.

물기를, 어떤 것이 「無住處」인가? 「答」하되, 「一切處」에 「住」하지 않는 것이 곧 「無住處」에 「住」하는 것이다. 물기를, 어떤 것이 「一切處」에 「住」하지 않는 것인가? 「答」하되, 「一切處」에 「住」하지 않는 것은 「善惡」·「有無」·「內外」·「中間」에 「住」하지 않고, 「空」·또한 「不空」에 「住」하지 않으며, 「定」·또한 「不定」에도 「住」하지 않는다. 곧 이것이 「一切處」에 「住」하지 않는 것이다. 但「只」 「一切處」에 「住」하지 않는 것 곧 이것이 「住處」이다. 이와 같이 心「得」한다면 곧 「無住心」이라 「名」한다. 「無住心」이란 것은 「佛心」인 것이다.

「住無住處」義는 「善惡」등 一切의 有所得見을 生成하지 않는 淸淨·不動義<sup>5)</sup>를 提示한다. 故로 無住를 爲한 無住의 滯留를 遠離한 意味에서 「無住處」에의 「住」내지 「不住一切處, 即是住處」義가 示提된다. 「無住心者是佛心」義는 바로 「只箇不住一切處心者, 即是佛心. 亦名解脫心, 亦名菩提心, 亦名無生心, 亦名色性空」<sup>6)</sup>義와 同軌이다.

惠能은 五祖(弘忍)의 「應無所住·而生其心」<sup>7)</sup>(〈金剛經〉)說教에 이르러

5) 「善薩住不動者, 住無住爲住.」(〈二入四行論〉).

6) 〈頓悟入道要門論〉卷上.

7) na kvacit pratiṣṭhitam cittaṃ utpādayitavyam(同經, XIV).

「言下」에 「大悟」한다. 卽, 〈六祖壇經〉行由品에,

「爲說金剛經, 至應無所住, 而生其心, 惠能言下大悟, 一切萬法, 不離自性. 遂啓祖言, 何期自性, 本自清淨. 何期自性, 本不生滅. 何期自性, 本自具足. 何期自性, 本無動搖. 何期自性, 能生萬法.」

五祖가 위하여 〈金剛經〉을 「說」함에 「應」當히 「住」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라 함에 이르러 惠能이 그 「言下」에 「一切萬法」이 「自性」을 「不離」함을 크게 깨달았다. 나아가 五「祖」께 말씀 드리기를, 「自性」이 「本」來 「清淨」함을 어찌 「期」約하고, 「自性」이 「本」來 「不生滅」임을 어찌 「期」約하며, 「自性」이 「本」來 스스로 「具足」함을 어찌 「期」約했겠습니까? 「自性」이 「本」來 「動搖」가 없음을 어찌 「期」約하고, 「自性」이 「萬法」을 「生」함을 어찌 「期」約했겠습니까?

이러한 「自性」의 諦悟를 簡明히 推出하면, 「一切萬法不離自性」을 基軌로 한 自性의 (1) 本自「清淨」, (2) 本「不生滅」, (3) 本自「具足」, (4) 本「無動搖」, (5) 能「本萬法」義가 明示된다. 「自性」의 上記五義를 自了・自肯한 惠能에게 五祖는 「本性」을 「悟得」한 것이라 한다.

이어 五祖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卽,

「若識自本心・見自本性・卽名丈夫天人師佛.」萬「若」 스스로 「本心」을 悟「識」하고, 스스로 「本性」임을 諦「見」하면 곧 「丈夫」, 「天人師」, 「佛」이라 名한다.

「本心」의 自「性」으로서 「本性」은 「清淨」・「不生滅」・「具足」・「無動搖」・「生萬法」義를 提示한다. 이러한 五義는 實有見의 自性을 想味하지 않는 것이다.<sup>8)</sup>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生無所住心」<sup>9)</sup>에 關한 六祖의 〈口訣〉을 보면, 「不應住色生心者. 是都標也. 聲香等別. 列其名也.

8) 「世人妙性本空, 無有一法可得. 自性真空, 亦復如是.」 「善知識, 自性能含萬法是大, 萬法諸在人性中. 若見一切人惡之與善, 盡皆不取不捨, 亦不染著, 心如虛空, 名之爲大.」 (〈六祖壇經〉般若品).

9) 〈金剛經〉離相寂滅分第十四:

於此六塵起憎愛心，由此妄心，積集無量業結，覆蓋佛性，雖種種勤苦修行，不除心垢，無解脫之理，推其根本，都由色上住心，如能念念常行般若波羅蜜，推諸法空，不生執著，念念常自精進，一心守護，無令放逸，淨名經云上求一切智，無非時求，大般若經云，菩薩摩訶薩晝夜精勤，常住般若波羅蜜多，相應作意，無時暫捨。」

「應」當히 「色」에 「住」함이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란 「都標」이고, 「聲香等」의 區「別」은 그 「名」을 羅「列」한 것이다. 이 「六塵」(色聲 등)에 있어서 「憎」·「愛」·「心」을 일으키니 이 「妄心」(憎愛心)으로 緣「由」하여 「無量」한 「業結」을 「積集」하므로 「佛性」을 「覆蓋」하는 것이다. 비록 「種種」의 「苦」·「行」을 「勤」·「修」하나 「心垢」를 「不除」하므로 「解脫」의 道「理」가 없는 것이니, 그 「根本」을 「推」及하면 모두 「色」위에 마음을 「住」한데 緣「由」한다. 「能」히 「念念」이 「般若波羅蜜」을 「常行」하는 것 같이, 「諸法」이 「空」함을 미루어 「執著」을 내지 않고, 「念念」이 恒「常」 스스로 「精進」하여 「一心」을 「守護」하며, 「放逸」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淨名經>에 이르되, 위로 「一切智」를 「求」함에, 「求」하지 않는 때가 없다. <大般若經>에 이르되, 「菩薩摩訶薩」이 「晝夜」로 「精勤」하며 「般若波羅蜜多」에 「常住」하니, 「相應作意」하여 「暫」時도 「捨」離하는 때가 없다.

「六塵」에 「住」著함으로써 「妄心」을 現「起」시켜 끝내 「佛性」 곧 本性 내지 自性을 「覆蓋」하게 됨으로 「不應住色」 등의 無住心義를 提示한다. 또한 「般若波羅蜜」의 「常行」·「執著」의 「不生」·「自」·「進」·「護」·「心」·「不」·「放逸」 등 「應生無所住心」義가 提示된다.

「般若波羅蜜」을 所依로 하는 轉悟體系가 <六祖壇經>般若品에 提示된다. 卽,

「解義，離生滅，著境生滅起，如水有波浪，即名爲此岸，離境無生滅，如水常通流，即名爲彼岸，故號波羅蜜。善知識，迷人口念，當念之時，有妄有非，念念若行，是名眞性。悟此法者，是般若法。修此行者，是般若行。不修即凡，一念修行，自身等佛。善知識，凡夫即佛，煩惱即菩提。前念迷

即凡夫，後念悟即佛。前念著境即煩惱，後念離境即菩提。」

波羅蜜「義」를 「解」釋하면, 「生滅」을 遠「離」한 것이다. 「境」界를 執「著」하면 「生滅」이 일어남이 물의 「波浪」이 있음과 같으니, 곧 「此岸」이 된다고 「名」한다. 「境」界를 遠「離」하면, 「生滅」의 없음이 물이 恒「常」 「通流」함과 같으니, 곧 「彼岸」이 된다고 「名」하는 「故」로 「波羅蜜」이라고 「號」稱한다. 「善知識」이며 「迷人」은 입으로 생각하니, 생각할 때를 당하여 「妄」·「非」가 있는 것이다. 「念念」이 「行」한다면 이는 「眞性」이라 「名」한다. 이 「法」을 깨닫는 것이 「般若法」이고, 이 「行」을 닦는 것이 「般若行」이다. 「修」行하지 않으면 곧 「凡夫」이고, 「一念」 「修行」하면 「自身」이 「佛」과 同「等」한 것이다. 「善知識」이며 「凡夫」가 곧 「佛」이고, 「煩惱」가 곧 「菩提」다. 「前念」이 「迷」함은 곧 「凡夫」고, 「後念」이 「悟」함은 곧 「佛」이다. 「前念」이 「境」界에 執「著」함은 곧 「煩惱」고, 「後念」이 「境」界를 遠「離」함은 곧 「菩提」이다.

「波羅蜜」을 「生滅」의 遠「離」라고 「解義」한다. 「無生滅」은 물이 恒「常」 「通流」함과 같으므로 通用無滯의 無住心義내지 「應生無所住心」義를 提示한다. 「妄」·「非」가 清除된 「念念」의 「行」이 「本自清淨」·「本不生滅」 등 「自性」<sup>10)</sup>의 實「行」을 提示하는 것이니, 이러한 「自性」으로서 「本性」이 「眞性」이라 할 것이다. 「悟此法者·是般若法」이라 하므로 「般若法」은 滯累의 認識이 아니라, 「悟」得義로 提示된다.

이 提示는 失悟·無通滯留의 「住色生心」義와 「生無所住心」의 「悟」法義를 顯示한다.

따라서 有所得心으로서 色法을 넘어서는 無所得心の 「悟」法이 「般若法」임을 提示한다. 上記한 「本自清淨」·「本不生滅」 곧 「自性」의 實現이 「一念修行」이므로, 「眞性」의 實現 곧 「自身等佛」義가 밝혀진다. <金剛經口訣序>의 「亦云心迷則此岸·心悟則彼岸·心邪則此岸·心正則彼岸」義는 「前念迷即凡夫·後念悟即佛」내지 「前念著境即煩惱·後念離境即菩提」

10) <六祖壇經>行由品.

義라 할 것이다. 즉, 「此岸」義는 「凡夫」·「煩惱」를, 「彼岸」義는 「佛」·「菩提」를 想味하고, 「心迷」·「心邪」는 「前念迷」·「前念著境」을, 「心悟」·「心正」義는 「後念悟」·「後念離境」을 想味한다.

「煩惱」의 「體性」이 「本來」·「不生滅」이고, 「空」함으로 「煩惱」의 實「有」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sup>11)</sup> 衆〈生〉이 「迷」한 「故」로 「空」으로써 「華」를 삼지만, 萬「若」 「了悟」함을 믿는 境遇에는 「華」의 「本」來 「空」함을 안다<sup>12)</sup>고 한다.

이러한 迷悟狀況을 考慮한 境遇, 「凡夫即佛, 煩惱即菩提」義는 迷執의 狀態에서 指謂되는 相即義가 아니라, 「了悟」의 狀況에서 直了되는 相即義를 提示한다. 그러므로 菩提의 未得時에 菩提으로써 煩惱를 삼고, 또 菩提를 얻은때 煩惱으로써 菩提를 삼는다고 하는 論理가 所有得心の 論理라면, 了悟내지 悟法の 脈絡의 缺如된 것이고 般若의 轉悟體系로 볼 수 없는 것이다. 了悟의 脈絡은 「有所有」내지 有所得心の 「變」·「成」을 意味하지 않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不悟」(迷)·「悟」義에서 「佛是衆生」·「衆生是佛」이라 한다. 即, 〈六祖壇經〉般若品에,

「善知識. 不悟, 即佛是衆生. 一念悟時, 衆生是佛. 故知萬法, 盡在自心. 何不從自心中, 頓見眞如本性.」

「善知識」이여 「不悟」면, 곧 「佛」이 이 「衆生」이고, 「一念」 「悟」得한 때는 「衆生」이 이 「佛」이다. 「故」로 一切「萬法」이 다 「自心」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찌 「自心」가운데로 쫓아 「眞如」·「本性」을 「頓見」하지 않는가?

無所有·無所得心은 無所住心을 意味하고 通用無滯의 無住心은 바로

11) 「經云. 三毒即佛道. 煩惱名解脫. 所以然者. 煩惱體性本不生滅. 豈非即是解脫也.」(〈淨名玄論〉卷三: 大正藏三八, 874頁下) 「煩惱體性本空. 不言煩惱是有.」(同藏同頁下)

12) 「衆生迷故. 以空爲華. 若得了悟. 知華本空.」(上掲書: 同藏同頁下).

13) 「不言衆生本無所有. 今方是有. 但論即此衆生本是無所有. 如華本是空. 不言變空成華. 亦非變華爲空. 於病人空恒是華. 於無病人華恒是空. 於衆生. 菩提成煩惱. 於了悟之人. 煩惱常是菩提.」(上掲書: 同藏, 875頁上).

「生無所住心」을 指謂한다. 이러한 無住心은 「自心」에서 悟得되는 것이다. 「自心」의 直了·悟得은 곧 「自心」의 「眞如」·「本性」을 「頓見」하는 것이다. 이러한 了悟는 分別心の 有所有·有所得·有所住를 遠離한 無住義를 提示한다. 自心の 了悟로 實現되는 「眞如」·「本性」의 「頓見」은 「無所住心」의 心體·自性を 悟得한 意味로 보아진다. 따라서 「無住者·人之本性」내지 「無住爲本」義가 如上의 脈絡에서 提示된다.

### Ⅲ. 無念義

〈六祖壇經〉定慧品에 「無念」義를 明示한다. 卽,

「善知識，於諸境上，心不染，曰無念。於自念上，常離諸境，不於境上生心。」

「善知識」이여 「諸境」위에 마음이 汚「染」되지 않음을 「無念」이라 한다. 스스로 思「念」위에 恒「常」 「諸境」을 떠나고, 「境」界위에 마음을 「生」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無念義가 〈頓悟入道要門論〉卷上에 提示된다. 卽,

「無念者一切處無心是。無一切境界，無餘思求是。對諸境色，永無起動，是卽無念。無念者是名眞念也。若以念爲念者，卽是邪念，非爲正念，何以故。經云，若教人六念，名爲非念。有六念，名爲邪念，無六念者，卽眞念。」

「無念」이란 것은 「一切處」에 「無心」한 것이다.

「一切」의 「境界」가 없고, 「餘」他의 「思」念을 「求」함이 없는 것이다. 「諸境色」에 「對」해서 「永」久히 「起動」이 없는 것 이것이 곧 「無念」이다. 「無念」이란 것은 「眞念」이라고 「名」한다.

萬「若」 思「念」을 思「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邪念」이고 「正念」이 아니다. 왜냐하면 「經」에 이르기를, 「萬若」 사람에게 「六念」(念佛·念法·念僧·念戒·念施·念天)을 가르킨다면 「非念」(非正念)이라고 「名」

한다'. 「六念」이 있음은 「邪念」이라고 「名」하고, 「六念」이 없는 것은 곧 「眞念」이다.

「無一切境界, 無餘思求」는 「於自念上, 常離諸境」義를, 또 「對諸境色, 永無起動」은 「不於境上生心」義를 提示한다. 「無念者」를 「眞念」이라 함은 「爲心無染故, 妄念不生, 我人心滅, 畢竟清淨」<sup>14)</sup>義를 提示한다. 有所得心の 思「念」이 「以念爲心」의 「邪念」이고, 「有六念」의 「邪念」이므로 「正念」내지 「眞念」이라 하지 않는다.

이러한 「正念」·「眞念」義를 「正見」·「見無所見」<sup>15)</sup>義로 提示된다. 또 한 「於外不染色」·「內不生妄念」義를 「中道」·참된 「如來道」라 한다.<sup>16)</sup>

於境(「風」·「旛」)에 生心하는 「心動」義가 <六祖壇經>行由品에 提示된다. 卽,

「時有風吹旛動. 一僧曰風動. 一僧曰旛動, 議論不已. 惠能進曰, 不是風動, 不是旛動, 仁者心動.」

한때 바람이 불어 「旛」旗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 「僧」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또 한 「僧」은 「旛」旗가 움직인다 하여 「議·論」이 끝하지 않는다. 惠能이 나아가 이것은 「風動」·「旛動」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한다.

心の 生(「動」)·不生(不動)을 諦見하여 心の 本性 곧 自性을 了悟하는 轉悟方式이 提示된다. 心이 所屬을 가지는 輪廻의 心生은 自性을 悟得하는 轉悟實現을 蓋閉하므로 繫縛에 들고, 有所得心の 狀態인 것이다. 外境의 「風」·「旛」에 生念내지 生心하므로써 分別心을 일으켜 是非「議論」이 相爭不斷한 것이다. 이러한 有所得心の 求知執念은 心の 生·不生을 基軌로 한 迷·悟의 轉悟領域을 亡失한 態度이다. 眞僞의 取證에

14) <頓悟入道要門論>卷上.

15) 「見無所見, 卽名正見.」 「見一切色時, 不起染著, 不染著者, 不起愛憎心, 卽名見無所見也.」(上揭書, 卷上).

16) 「外縛色聲名爲彼心, 內起妄念, 名爲此心. 若於外不染色, 卽名無彼心, 內不生妄念 卽名無此心. 此非二邊也. 心旣無二邊. 中亦何有哉. 得如是者. 卽名中道, 眞如來道.」(上揭書, 卷上).

있어서 心·境의 隔離은 心生의 染著·共相으로 메꾸어지는 것이라면, 迷悟의 轉悟方式은 心·境의 分別을 넘어선 無隔無礙의 메꿀것이 없는 無念·無所有라 할 것이다. 心の 生·不生을 基軌로 하는 迷悟의 悟得方式이므로 「道」는 「知」·「不知」에 「屬」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7)</sup> 또한 「覺」은 無留無滯하여 取證을 갖지 않는 「無所有」<sup>18)</sup>로서 求知의 執識領域을 遠離한 것이다. 이러한 轉悟方式은 求知方式에서 亡失되는 不染·清淨·無縛·無所有義를 心得하게 하는 方式이라 할 것이다.

〈六祖壇經〉定慧品에 구체적인 「無念」義를 밝힌다. 卽,

「若只百物不思，念盡除却，一念絕即死，別處受生，是爲大錯，學道者思之。若不識法意，自錯猶可，更勸他人。自迷不見，又誘佛經。所以立無念爲宗。善知識，云何立無念爲宗。只緣口說見性迷人，於境上有念，念上便起邪見。一切塵勞妄想，從此而生。自性本無一法可得。」

萬「若」「百物」을 「不思」한다 하며 思「念」을 다 「除却」해 버리면, 「一念」이 「絕」한즉 죽어서 「別處」에 「生」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大錯」이 되는 것이다. 「道」를 배우는자는 愼「思」하라. 萬「若」「法」의 「意」味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그르침은 오히려 「可」하나, 다시 「他人」에게도 「勸」하며, 스스로 「迷」해서 보지 못하고 또한 「佛經」을 誹「誘」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無念」을 세워 「宗」旨로 삼는 것이다. 「善知識」이여 어째서 「無念」을 세워 「宗」旨로 삼는가 하면, 但「只」입으로 「見性」을 말하는 「迷人」때문이다. 迷人은 「境」界위에 思「念」을 所「有」하고, 思「念」위에 문득 「邪見」을 일으키는 緣由로 「一切」의 「塵勞」(煩惱)·「妄想」이

17) 「南泉因趙州問，如何是道。泉云，平常心是道。州云，還可趣向否。泉云，擬向即乖。州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覺，不知是無記。若直達不疑之道，猶如太虛廓然洞窟，豈可強是非也。」(《無門關》第十九)。

18) 「了夢幻者，謂塵相生起迷心爲有。觀察即虛，猶如幻人，亦如夜夢，覺已皆無。今了虛無。名不可得。相不可得。一切都不可得。是爲塵覺悟空無所有。」(法藏의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四五，633頁下)。

19) *nivṛttamabhidhātavyam nivṛtite cittagocare, anuppannīruddhā hi nirvānamiva dharmatā*. (MK. XVIII, 7) (「心」의 境界가 살아지면, 「言語」의 境界도 살아진다. 「法性」은 「涅槃」처럼 不生不滅이다.)

이로부터 「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自性」은 「本」來 「一法」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百物不思」라 하여 한가닥의 意識마저 다 除去해 버리면 이러한 狀態는 死境에 이른 것이다. 諸業에 繫縛된체로 死亡한 것이므로 輪廻를 未脫한 狀態이다. 그러므로 「別處受生」을免하지 못하는 것이다.

思「念」이 「境」界(對象)를 取하고 執住하여 「境」의 名·相등을 所有하게 된다. 思「念」은 「境」이라는 假構를 溫床으로 하여 執住하는 격이다. 이러한 溫床에 執住하는 思「念」은 「邪見」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溫床이 되는 것이므로 輪廻의 顛倒가 提示된다. 이러한 緣故로 「一切」의 煩惱·「妄想」이 이 思「念」으로부터 「生」한다는 것이다.

思「念」의 生은 곧 思「念」하는 心의 生이고, 有所得心의 心인 故로, 「無念」의 「宗」旨를 明示한다.

心의 本性 곧 「自性」의 不可得義를 提示하여 「心」의 「生」내지 思「念」의 「生」義를 了解하게 한다.

〈傳心法要〉에 「無求即心不生, 無著即心不滅, 不生不滅即是佛」이라 하여 心(自性)의 不生不滅義를 提示한다. 生滅의 共相이 寂滅한 것이니 「心行」(citta-gocara) 곧 思念의 境界가 寂滅한 境地를 意味한다. 〈中論〉·觀法品第十八·第7偈<sup>19)</sup>에 이러한 不生不滅(anutpannāniruddhā「無生亦無滅」)義를 들어 諸法의 實相을 提示한다. 即,

「諸法實相者 心行言語斷 無生亦無滅 寂滅如涅槃。」

「心行」곧 思念의 對象이 寂滅할 때, 「言語」(abhidhātavya) 곧 敘述의 領域이 止滅되는 戲論寂滅義를 提示한다.

〈傳心法要〉에 「言語道斷, 心行處滅」<sup>20)</sup>義로서 「無心」義를 提示한다.

20) 〈頓悟要門〉에 「義」를 얻으면 「言」이 「絶」하고, 「義」는 「空」·「道」를 指謂하며 「道」는 「言」을 「絶」한다고 하여 「言語道斷」의 積極的인 意味를 提示한다. 또한 無生義로서 「心行處滅」義를 밝힌다. 即, 「以言顯義, 得義言絕, 義即是空, 空即是道, 道即是絕言, 故云言語道斷. 心行處滅, 謂得義實際, 更不起觀, 不起觀故, 即是無生, 以無生故, 即一切色性空, 色性空故, 即萬緣俱絕, 萬緣俱絕者, 即是心行處滅.」

即,

「此法即心，心外無法。此心即法，法外無心。心自無心，亦無無心者。將心無心，心却成有。默契而已，絕諸思議。故曰，言語道斷，心行處滅。此心是本源清淨佛，人皆有之。」

이 「法」은 곧 「心」이고, 「心」밖에 「法」이 없다. 이 「心」은 곧 「法」이고, 「法」밖에 「心」이 없다.

「心」이 스스로 「無心」이니, 또한 「無心」이란 것도 없다. 萬若 「心」을 「無心」으로 하려고 하면, 「心」은 도리어 「有」(有心)을 이룬다. 「默」默히 「契」합하는 것만이 「諸思議」를 「絕」하는 것이다. 「故」로 「言語道斷, 心行處滅」이라 한다. 이 마음이 바로 「本源清淨佛」이고, 사람이 다 이를 具「有」하고 있다.

「心」스스로의 「無心」性은 生·滅의 名·相으로 取見할 수 없고, 生滅現象을 넘어서는 不生滅 곧 寂滅義를 提示한다. 寂滅義는 絕義로서 有所得心의 心境·戲論을 超絶하는 意味이다.<sup>21)</sup> 「心」스스로의 「無心」義는 寂滅義를 提示한다. 따라서 「無心」이란 名·相도 超絶하는 것이다. 「心」을 「無心」으로 計度思量하면 有所得心을 造「成」하는 것이다. 「心自無心」의 寂滅義는 바로 「默契」 곧 「默」默히(默識·默言) 眞如내지 道에의 「契」合義를 可能하게 한다. 故로 戲論·分別을 넘어서는 「默契」만이 「諸思議」를 超「絶」한다는 것이다. 이는 「無心」의 絶待境地로서 「言語道斷·心行處滅」義를 提示한다. 「言語道」와 「心行處」가 「斷」·「滅」된 絶待境地의 「心」 곧 「本源清淨佛」이 提示된다. 이러한 「無心」의 心내지 自性으로서 心을 사람마다 具「有」하므로 「無心」性은 사람의 本性임이 提示된다.

〈六祖壇經〉定慧品에 「眞如」는 「念」의 「體」이고, 念은 「眞如」의 「用」

21) 〈大慧書〉卷上에 「知」·「解」體와 「菩提」 등의 「寂滅」義가 明示된다. 即, 「既識得起處, 即此知解便是解脫之場, 便是出生死處. 既是解脫之場, 出生死處, 則知底解底當體寂滅. 知底解底既寂滅, 能知知解者, 不可不寂滅. 菩提涅槃眞如佛性, 不可不寂滅. 更有何物可障, 更向何處求悟入.»

이라고 한다. 卽,

「若有所得，妄說禍福，即是塵勞邪見。故此法門立無念爲宗。善知識，無者無何事，念者念何物，無者無二相，無諸塵勞之心。念者念眞如本性。眞如卽是念之體，念卽是眞如之用。」

萬「若」「所得」이 있어서 「禍福」을 「妄說」한즉 이는 煩惱(「塵勞」)·「邪見」이다. 「故」로 이 「法門」은 「無念」을 세워 「宗」旨로 삼는 것이다.

「善知識」이여 「無」란 무슨 일이 없는 것이고, 「念」이란 무슨 물건을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無」란 「二相」이 없고, 「諸」煩惱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念」이란 「眞如」의 「本性」을 「念」하는 것이니, 「眞如」는 곧 「念」의 「體」이고, 「念」은 곧 「眞如」의 「用」이다.

「無念」은 「有所得」心이 아닌 無所得心으로 提示된다. 能所내지 主客의 分別相이 없고, 「煩惱」가 없는 「無心」의 「無」義는 有所得心의 不生義를 提示한다. 「眞如」의 「本性」을 「念」함은 「眞如」·「念」의 「體」·「用」에 있어서 不離·不隔의 「念」이고, 有無의 間隔이 없는 「念」인 것이다.

澄觀의 <華嚴經隨疏演義鈔>卷第三十四에 北宗의 「離念」義에 對한 南宗의 「無念」義를 밝힌다. 卽,

「以北宗宗於離念，南宗破云，離念則有念可離，無念卽本自無之，離念如拂鏡，無念如本淨。」<sup>22)</sup>

「北宗」은 「離念」을 「宗旨」로 한다. 南宗이 이를 「破」해 이르되, 「離念」이라면 「可」히 떠날 「念」이 있는 것(有)이고, 「無念」은 곧 「本」來 스스로 可離해야 할 「念」이 없는 것이다. 「離念」은 거울을 「拂」拭하는 것 같고, 「無念」은 「本」來 淸「淨」한 것 같다.

南宗의 「離念」義는 「有念可離」로서 有念·無念의 間隔이 提示된다. 「無念」義는 「本自無之」로서 「有念可離」·無念可無의 有無滯留가 없는 意味이다.

「離念如拂鏡」·「無念如本淨」義는 神秀와 惠能의 相異한 基軌를 提示

22) 大正藏三六, 261頁下.

한다. 神秀는 五祖에게 바치는 悟道偈에 「拂鏡」義를 담고 있다. 卽,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sup>23)</sup>

몸이 「菩提樹」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의 틀같은 것이다. 때때로 부지런히 「拂拭」하여, 먼지와 티끌이 끼지 않게 하리.

「本性」의 「本淨」義를 悟得 못한 緣故로 「拂拭」의 領域 곧 「門外」에 이른 것이라 한다. 卽, 〈六祖壇經〉行由品에 五祖의 教評이 아래와 같이 明示된다.

「汝作此偈, 未見本性. 只到門外, 未入門內. 如此見解, 竟無上菩提, 了不可得.」

너가 이 「偈頌」을 지은 것이라면, 아직 「本性」을 보지 못한 것이다. 但 「只」 「門」밖에 이른 것이고, 아직 「門」안에 들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앞으로서는 「無上」의 「菩提」를 구한다 해도 「了」「得」할 수 없는 것이다. 「無上」의 「菩提」는 반드시 「言下」에 스스로 「本心」을 悟識하고, 스스로 「本性」의 「不生不滅」을 얻는 것임<sup>24)</sup>으로 「本心」의 頓悟義와 「本性」의 「不生不滅」義가 明示된다. 이러한 境地에는 「鏡」의 「拂拭」·「塵埃」의 「勿使惹」義가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다.

〈六祖壇經〉行由品에 惠能의 五祖에게 바치는 悟道呈偈가 明示된다. 卽,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菩提」는 「本」來 나무가 없는 것이고, 밝은 거울도 또한 「臺」가 아닌 것이다. 「本來」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어느 곳에 「塵埃」가 깔 것인가.

神秀의 「拂鏡」義와 對照되는 心의 自性내지 本性이 「本淨」義임을 提示한다. 惠能의 呈偈에는 「菩提」<sup>25)</sup>·「鏡」의 名·相이 寂滅되고, 「一物」

23) 〈六祖壇經〉, 行由品.

24) 上揭書, 行由品.

25) 〈頓悟入道要門論〉에 「菩提」의 「不可得」(絶)義를 들어 「無念」義를 提示한다. 卽, 「只如菩提, 假立名字, 實不可得. 亦無前後得者, 爲不可得故. 卽無有念. 只箇無念, 是名眞念.」

이라도 可得할 것이 없는 「本來」의 眞面目을 提示한 것이다. 「本來」의 眞面目은 「虛空」의 본 모습처럼 구름의 有·無에 따른 淨·垢二相을 遠離하고, 不增不減의 「常清淨不著垢闍」<sup>26)</sup> 내지 「本淨」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六祖壇經〉坐禪品에 「人性」의 「本淨」義를 明示한다. 卽,

「若言着淨, 人性本淨, 由妄念故, 蓋覆眞如。」

萬「若」清「淨」함을 住「着」한다고 말한다면, 「人性」은 「本」來 清「淨」한데, 「妄念」으로 因「由」한 「故」로 「眞如」를 「蓋覆」하는 것이다.

「着心」 곧 有所得心이 「着淨」의 마음을 일으켜, 「淨妄」을 내는<sup>27)</sup> 結果에 이른다.

上記한 「無念如本淨」義는 「人性本淨義」를 指謂하고, 「無念」義는 「人性」의 「本淨」義를 提示한다.

惠能은 「無念」이란 「一切法」을 알아 보아도, 마음이 「染著」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無念」의 「用」義를 밝힌다. 卽, 〈六祖壇經〉般若品에

「用即徧一切處, 亦不著一切處. 但淨本心, 使六識出六門, 於六塵中, 無染雜, 來去自由, 通用無滯.」

「用」함인즉 「一切處」로 「徧」周하여도 또한 「一切處」를 住「著」하지 않는다. 다만 「本心」이 清「淨」함에, 「六識」으로 하여금 「六門」을 나가도 「六塵」(六境)중에 「染」·「雜」이 없고, 「來去」가 「自由」하므로 「通用」無礙하고 「滯」累가 없는 것이다.

「無念」의 「徧」周 「不著」義는 「本心」내지 「本性」의 本「淨」義를 指謂하고, 「來去自由」·「通用無滯」義는 「無念」의 「自在解脫」<sup>28)</sup>義를 말한다. 그러므로 「無念」은 靜的인 實有義로 定立되는 것이 아니라, 人性의 自性·本性내지 「人性本淨」을 實現하는 意味로 밝혀진다.

26) 「譬如虛空性常清淨不著垢闍. 或時風雲闍闍. 世人便言虛空不淨. 更有猛風吹除風雲. 便言虛空清淨. 而虛空實無垢無淨.」(〈智度論〉: 大正藏二五, 698頁中).

27) 〈六祖壇經〉, 坐禪品.

28) 上揭書, 般若品.

## Ⅳ. 無 相 義

「六祖壇經」, 定慧品에 「無相」義를 明示한다. 卽,

「善知識. 外離一切相, 名爲無相. 能離於相, 卽法體清淨. 此是以無相爲體.」

「善知識」이여 밖으로 「一切相」을 떠난 것을 「無相」이라 「名」한다. 「能」히 「相」을 떠나면 곧 「法體」가 「清淨」하다. 이것이 「無相」으로써 「體」를 삼는 것이다.

「一切」의 共「相」을 遠離하는 「無相」義는 「法體」의 「空寂」<sup>29)</sup>·「清淨」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共相으로 染築된 境界에서는 「法體」의 「清淨」義를 顯示할 수 없는 것이다.

〈六祖壇經〉, 機緣品에 「本心」·「本性」에 關한 智常과 大通(神秀)의 問答이 실려 있다. 卽,

「如何是智常本心本性, 大通乃曰汝見虛空否, 對曰見. 彼曰汝見虛空, 有相貌否, 對曰虛空無形, 有何相貌. 彼曰汝之本性, 猶如虛空, 了無一物可見, 是名正見. 無一物可知, 是名眞知. 無有青黃長短, 但見本源清淨, 覺體圓明, 卽名見性成佛, 亦名如來知見.」

무엇이 이 智常의 「本心」·「本性」입니까?

大通께서 이에 이르되, 너가 「虛空」을 보았는가 못보았는가? 「對」答하기를, 보았습니다. 저분이 이르되, 너가 「虛空」을 봄에 「相貌」가 있던가? 「對」答하기를, 「虛空」은 「形」狀이 없는데, 무슨 「相貌」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이르되, 너의 「本性」이 「虛空」과 같아서 한 물건도 「可」히 볼 것이 없음을 「了」得하는 것이 「名」을 「正見」이라 하고, 한 물건

29) 〈金剛經〉, 離相寂滅分第十四의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無實無虛」에 關한 〈六祖口訣〉에 「無實者以法體空寂. 無相可得. 然中有恆沙性德. 用之不匱. 故言無虛. 欲言其實. 無相可得. 欲言其虛. 用而無間. 是故不得言無. 不得言有」라 하여 「無相」을 攪示한로.

도 「可」히 알 것이 없는 것이 「名」을 「眞知」라 한다. 「靑」·「黃」·「長」·「短」이 없고, 다만 「本」來根「源」이 「淸淨」하여 깨달음의 본「體」가 뚜렷이 밝음을 보는 것이 곧 「見性成佛」이라 「名」하고, 또한 「如來」의 「知見」이라 「名」한다. 神秀는 智常에게 「本性」은 「虛空」처럼 無相(「無形」·「無相貌」·「無有靑黃長短」)義를 提示하여 「正見」·「眞知」義를 明示하고, 나아가 「本源」의 「淸淨」·「覺體」의 「圓明」義를 提示하여 「見性成佛」·「如來知見」義를 定立한다. 이러한 神秀의 所說에 對해, 智常에게 敎示하는 惠能의 偈는 아래와 같다. 卽, <壇經>, 機緣品에,

「不見一法存無見, 大似浮雲遮日面. 不知一法守空知, 還如太虛生閃電. 此之知見驚然興, 錯認何曾解方便. 汝當一念自知非, 自己靈光常顯現.」

한 「法」도 보지 않음에 「無見」을 「存」留하니, 「浮雲」이 「日面」을 가리우는 것과 매우 恰「似」하다. 한 「法」도 알지 않음에 「空知」를 「守」滯하니, 도리며 「太空」에 「閃電」이 생김과 같다.

이러한 「知」·「見」이 「驚然」히 일어나면, 잘못 안 것이니, 어찌 일찌기 「方便」임을 알겠는가. 너가 「一念」에 스스로 그른줄 알면, 「自己」의 神「靈」한 빛이 恒「常」 「顯現」한다.

「不見一法」이라 하여 「無見」을 「存」留하므로 「浮雲」이 「遮」 「日」하는 것 같이 「本心」·「本性」을 蓋覆하게 된다. 「不知一法」이라 하여 「空知」를 「守」滯하므로 「太空」에 「閃電」이 생기는 것같이 「空知」의 障礙가 있는 것이다. 卽, 「無見」·「空知」의 滯留는 「無」相·「空」相의 共相을 가짐으로 「見」·「知」의 知體를 所有하여 住著한 것이다. 이러한 「見」·「知」는 取證에 緣由한 住著<sup>30)</sup>이므로 有所得을 벗어나지 못한다. 「無」相·「空」相에 滯留하여 取證하므로써 「無見」·「空知」의 知體를 所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惠能이 「彼師」(神秀)의 「所說」은 오히려 「見」·

30) <頓悟入道要門論>卷上에, 取「證」하지 않아야 絕待境地(無爲)에 「住」著하지 않는다고 한다. 卽, 「不住無爲者, 雖修無念, 不以無念爲證. 雖修空, 不以空爲證, 雖修菩提涅槃無相無作, 不以無相無作爲證, 卽是不住無爲也.」

「知」를 「存」留한다<sup>31)</sup>고 評한 것이다.

「一念」에 「無見」·「空知」의 잘못을 「自知」함은 取證方式이 아닌 直了·自悟이므로 知體의 所得心이 없고, 바로 「本心」·「本性」에 契合된 實現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境地에서 「自己」의 「靈光」이 恒「常」 「顯現」하는 것이라 한다. 곧 「自己」의 「本心」·「本性」領域이 不增不減하는 「靈光」을 「顯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無相義는 取證이 없고, 知體를 所有하지 않는 意味로 提示된다. 惠能은 「四乘」을 들고 「最上乘」이 바로 그의 禪系임을 提示한다. 即, 〈壇經〉, 機緣品에,

「法無四乘, 人心自有等差. 見聞轉誦, 是小乘. 悟法解義, 是中乘. 依法修行, 是大乘. 萬法盡通, 萬法具備, 一切不染, 離諸法相, 一無所得, 名最上乘.」

「法」은 「四」種의 「乘」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等級」 「差別」이 있는 것이다. 보고 들어 「轉誦」함은 「小乘」이고, 「法」을 깨달아 뜻을 알아 「中乘」이며, 「法」에 「依」해 「修行」함이 「大乘」이요, 「萬法」을 다 통하여 「萬法」을 「具備」함에, 「一切」에 「不染」하고, 「諸法」의 共「相」을 遠「離」하여서, 하나도 「所得」이 없음을 「最上乘」이라 「名」한다.

「人心」의 境地에 따라 「等差」를 스스로 가지는 것이다. 「轉誦」의 境地는 「悟」·「解」가 없는 「小乘」의 水準이고, 「修行」이 缺如된 佛「法」의 「悟」識 및 그 意「義」의 「解」得만을 갖는 水準은 「中乘」의 境地이다. 더 나아가 「悟」·「解」된 「法」에 「依」據하여 實踐「修行」하는 水準은 「大乘」의 境地이다. 마지막으로 「萬法」을 다 融「通」하고, 「萬法」을 「具備」하여도 「一切」에 「不染」하므로써 「諸法相」을 遠「離」한 「一無所得」의 境地는 「依」憑의 所得이 없고, 「修行」의 境界도 갖지 않는 「自性」의 「自如」<sup>32)</sup>義를 提示한다. 이러한 境地는 遮·忘의 能所가 없는 融「通」無「依」

31) 〈壇經〉, 機緣品.

32) 「一切時中, 自性自如.」(〈壇經〉, 機緣品).

한 「自性」의 「自如」를 實現한 것이다. 知訥은 「無心」을 「了」得하면 「觸途無滯」이고, 「理」에 「稱合」하여 「散亂」을 거둠으로 「忘緣」의 「力」이 있으며, 「擇法觀空」하는 故로 「遺蕩」의 「功」이 있다<sup>33)</sup> 한다. 곧 「定慧」의 「拘束」을 脫離한 「無心」의 「合道」義를 밝혀 「功力」의 「枉費」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依法修行」의 段階에는 「遺」·「忘」의 「功」·「力」을 所有하므로 「自性」의 「自如」내지 「無心」의 「合道」에 이르지 못한다.

「自心」 또는 「本心」의 「自性」은 造作物이 아니고, 求知 또는 所有의 對象내지 內容이 되지 않는 것이다. 卽, 以心見心の 分別이 이루어질 수 없고, 共相이 없는 것이다.<sup>34)</sup> 다만 直了·自悟의 實現으로서 「自性」의 「自如」만이 取證·所有의 「見」·「知」를 遠離하는 것이다.

〈金剛經〉, 大乘正宗分第三에 關한 〈六祖口訣〉에 「諸法相」을 「執著」함으로 「無爲」의 道「理」에 通「達」하지 못한다고 한다. 卽,

「祇爲凡夫不見自本心. 不識佛意. 執著諸法相. 不達無爲之理. 我人不除. 是名衆生.」

「凡夫」가 스스로 「本心」을 悟「見」하지 못하므로 「佛意」를 悟「識」하지 못하고, 「諸法」의 共「相」에 「執著」하므로 「無爲」의 道「理」에 通「達」하지 못하며, 「我」相·「人」相을 「除」去하지 못하므로 이를 「衆生」이라 「名」한다.

「凡夫」가 「本心」을 自悟하지 못하므로 内外의 諸共相을 構築하여 「執著」하고, 絶待(「無爲」)의 道「理」에 通「達」하지 못한다. 그래서 「佛意」를 忘失하고 「我」相·「人」相을 所有하는 것이다. 〈六祖口訣〉에 「四相」의 「有」·「無」로 因한 「衆生」·「佛」義를 明示한다. 卽,

33) 「若了無心, 觸途無滯, 絕一塵而作對, 何勞遺蕩之功. 無一念而生情, 不假忘緣之力. 以是當知, 祖於無心合道者, 不爲定慧所拘也. 何者. 定學者, 稱理攝散故, 有忘緣之力. 慧學者. 擇法觀空故, 有遺蕩之功. 今直了無心, 觸途無滯者, 以無障礙解脫智觀前故, 一塵一念, 俱非外來, 俱非別事, 何有枉費功力耶.」

34) 知訥의 〈修心訣〉에 「本心」은 「形」狀이 없고, 「佛性」은 「外來」로써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한다. 卽, 「所謂勿形改者, 是諸佛之法印, 亦是讀本來心徑. 斷佛體, 獲靈法身, 何假外求.」

「有四相即是衆生。無四相即是佛。迷即佛是衆生。悟即衆生是佛。」

「四相」(我·人·衆生·壽者相)<sup>35)</sup>을 所「有」함은 「迷」함이고 「本心」의 「佛」을 蓋覆한 것이니 「佛」이 곧 「衆生」이다. 「四相」을 所「有」하지 않음은 「悟」이고 「本心」의 「佛」을 不離·直了함이니 「衆生」이 곧 「佛」이다.

「迷即佛是衆生」·「悟即衆生是佛」義는 「迷」·「悟」의 相即, 「衆生」·「佛」의 相即義를 提示한다. 「衆生」의 「本心」이 「佛」이므로 「衆生」의 「佛」·「佛」의 「衆生」으로서 無二의 相即義가 提示된다. 이러한 相即義는 「本心」의 共相이 不可得인 故로 「衆生」·「佛」의 一相見과 異相見을 얻을 수 없고, 分別의 是謂·非謂에는 所屬되지 않은 相即이다. 轉悟의 實現내지 無所得心의 不住一異相義로 提示되는 相即義이다. 一異의 共相이나 是非의 分別이 있다면 滯累된 名·相을 所有한 相即見이 될 것이다.

有所得的 對象내지 內容으로서 「衆生」의 「佛」·「佛」의 「衆生」이 아니고, 轉悟의 法내지 悟得의 法으로서 相待이면서 絕待인 「衆生」의 「佛」·「佛」의 「衆生」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轉悟의 待法은 言詮·行境을 絕待하는 悟覺으로 열려 名·相이 寂滅하므로 悟得의 對象은 不留한다. 따라서 待而絕待의 相即義는 一異·是非를 넘어서는 轉悟方式임으로 相對의 立見이 얻어질 수 없다. 이러한 轉悟交涉의 不滯不累한 法이 <六祖壇經>, 頓漸品에 提示된다. 卽,

「無常者，卽佛性也。有常者，卽一切善惡諸法分別心也。」

恒「常」함이 없는 것이 곧 「佛性」이고, 恒「常」함이 있는 것이 곧 「一切善惡」과 모든 「法」을 「分別」하는 「마음」이다. 또 惠能이 이르기를, 「佛性若常，更說什麼善惡諸法，乃至窮劫無有一人發菩提心者。故吾說無

35) 惠能은 <金剛經>, 大乘正宗分第三에 闡한 <口訣>에, 「凡夫四相」과 「修行人」의 「四相」을 明示한다. 卽, 「迷人恃有財寶學問族姓。輕慢一切人。名我相。雖行仁義禮智信。而意高自負。不行恭敬。言我解行仁義禮智信。不合敬讓。名人相。好事歸己。惡事施於人。名衆生相。對境取捨分別。名壽者相。是謂凡夫四相。修行人亦有四相。心有能所。輕慢衆生。名我相。持持戒。輕破戒者。名人相。厭三塗苦。願生諸天。是衆生相。心愛長年。而勤修福業。諸執不忘。是壽者相。」

常, 正是佛說眞常之道也. 又一切諸法, 若無常者, 即物物皆有自性, 容受生死, 而眞常性有不偏之處. 故吾說常者, 正是佛說眞無常之義.(頓漸品)

「佛性」이 萬「若」恒「常」이라면, 다시 어떻게 「善惡」의 「諸法」을 「說」하겠는가? 이에 「劫」이 다하도록 한 사람도 「菩提心」을 일으킬 「者」가 없을 것이다. 「故」로 내가 「說」한 「無常」은 바로 「佛說」인 참된 「常」의 「道」이다.

또 「一切諸法」이 萬「若」 「無常」한 것이면, 곧 「物物」이 모두 「自性」이 있어 「生死」를 받아들여므로, 참으로 恒「常」한 「性」品이 周「偏」하지 못한 곳이 있다. 「故」로 내가 「說」한 恒「常」이란 것은 바로 「佛」이 「說」한 「眞無常」의 뜻이다.

「佛性」이 「常」이면 「善惡」의 「諸法」으로 教化할 餘地가 없다. 곧 定「常」이므로 轉悟의 狀況이 없고, 固定된 成佛狀態이므로 教「說」이 悟得될 수 있는 轉悟交涉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菩提心」 곧 覺心을 일으킬 「者」가 없게 된다. 이러한 執着된 「常見」을 遠離하는 轉悟義로서 「無常」을 「說」한 것이다. 「常」·「無常」의 相을 構築하며 顛倒된 知·見을 所有하므로 兩邊에 執着하게 되고, 相對의 立見에 閉鎖되는 것이다.

轉悟의 待法은 「常」·「無常」의 待而絕待義로서 「常」·「無常」의 相見에 不滯하면서 悟「道」를 여는 것이다. 卽, 惠能의 「說」한 「佛性의 無常」義는 「佛」의 「佛性의 眞常之道」義를 여는 것이다. 待法으로서 「常」·「無常」義는 悟法의 脈絡에서 「常」·「無常」見을 넘어서는 意味인 故로 待法이면서 絕待法인 것이다. 換言하면 待而絕待의 脈絡에서 「常」·「無常」義의 法義는 悟「道」를 開導할 뿐, 「常」·「無常」法 그 自體는 滯留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一切法」의 「無常」·「常義」도 위와 같은 意味를 提示한다.

自心의 本性내지 「佛性」을 自見·直了내지 見性의 實現에 基軌를 둔 惠能의 思想이 提示된다. 즉, 知法解義에 執着하지 않고, 悟法의 待而絕待義를 了悟하며, 自心의 本性·自性에 契合하는 頓悟義를 提示하는

것이다.

惠能은 「吾所說法, 不離自性. 離體說法, 名爲相說, 自性常迷」(頓漸品)이라 한다. 「自性」을 「不離」·「不隔」한 「說法」임은 바로 「自性」의 自悟·自見내지 直了를 爲한 轉悟의 「說法」인 것이다. 「自性」이란 當「體」를 떠나 「法」을 「說」함은 共「相」의 「說」이라 하므로 惠能의 「說法」은 無相의 轉悟「說法」인 것이다.

「相說」에 依托하면 「自性」의 了悟를 亡失하여 「自性」을 「常迷」하게 된다. 그러므로 自心·本心の 「自性」을 自悟·直了하는 轉悟實現에 있어서 無相의 法이 轉悟法이고, 離相은 「不離自性」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無相義는 「自性」의 自悟·直了에 있어서 無媒介의 實現「體」이고, 迷·悟내지 衆生·佛의 相即轉悟實現에 있어서 無相對·無辦證의 絕待「體」라고 보아진다.

## V. 結 言

(1) 離相·無念·不住의 實現은 悟法의 狀況에서 이루어진다. 轉悟交涉 내지 悟法을 隔離한 「離相」·「無念」·「不住」義의 立見은 誤見이다.

(2) 「住心」의 「自絶」은 「人之本性」의 「無住」義를 提示한다. 三世에 包「攝」되지 않는 自心내지 本心은 「無住」의 「心」이고, 「無住處」에 「住」하는 「人之本性」을 提示한다. 또한 無所有·無所得心이 無住心이고, 通用 無滯의 無住心이 바로 「生無所住心」義라 밝힌다. 惠能의 「自性」의 「本自淸淨」·「本不生滅」·「本自具足」·「本無動搖」·「能生萬法」義를 「大悟」했다함은 「無住」의 「人之本性」내지 「自性」이 佛性임을 了悟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스스로 「本心」임을 悟「識」하고, 스스로 「本性」임을 諦「見」하면 「佛」이라 하므로, 「本性」의 「無住心」이 佛心임을 提示한다. 이러한 思想에서 「無住心」은 一切의 有所得心을 벗어난 「解說心」·「佛心」義(〈頓悟要門〉)로 明示된다.

(3) 外境에 生念내지 生心하여 分別心을 일으키는 輪廻의 思念에 對하여, 心의 生(動)·不生(不動)을 諦見하여 心의 本性 곧 自性을 了悟하는 轉悟方式이 無念의 轉悟方式이다.

「無念」의 「無」義는 能所·主客의 分別相이 없고, 諸煩惱를 生起하는 染心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不染·清淨의 狀況에서 「無念」의 「念」義는 積極的으로 「眞如」의 「本性」을 「念」하는 것이다. 「眞如」의 「本性」내지 自性을 「念」함은, 「眞如」·「念」의 「體」·「用」相即義로서 不離不隔의 直「念」을 意味한다. 이러한 相即義는 相即無二의 理解를 透脫한 「體」·「用」의 不離不隔義를 指謂하는 것이다.

따라서 「眞如」의 「本性」내지 自性을 「念」함은 融「通」無「依」한 「自性」의 「自如」義로 提示된다. 「無念」義는 「本自無之」로서 「有念可離」·無念可無의 有無滯累와 「可離」할 思念이 없는 것이다. 곧 「本性」의 「本淨」義를 體現함이니, 「拂拭」할 「鏡」을 所有하지 않는 것이다. 故로 「人性」의 「本淨」義와 「忘念」에 緣「由」한 「眞如」의 「蓋覆」義를 明示한다.

「無住」를 「人」의 「本性」, 「無念」을 「人性」의 「本淨」義로 밝힌다. 「無念」의 「用」은 「一切處」를 住「著」하지 않는다는 脈絡에서, 「無念」을 體·無住를 用으로 보면 「本性」의 不離不隔한 體用契合義가 提示된다.

(4) 「無見」·「空知」의 有所得心은 「無」相·「空」相의 共相을 執著하여 「見」·「知」의 知體를 所有하게 된 것이다. 곧 「無」相·「空」相에 滯留하여 取證하므로써 「無見」·「空知」의 知體를 所有하게 된 것이다. 「無相」義는 共相의 構築·取證이 없고, 知體의 所有가 없는 意味로 提示된다. 또한 離相은 바로 「不離自性」을 意味한다. 이러한 「無相」義의 實現은 「自性」의 「自如」義에 歸着된다.

絕待(「無爲」)의 道「理」에 通「達」함이 「諸法相」의 「執著」을 遠離함에 있으므로, 「無相」義의 實現은 곧 絕待境地의 道「理」에 通「達」함을 意味한다. 「佛說」의 「無爲法」이란 것은 곧 「無住」이고, 「無住」는 곧 「無相」이다. 또 「無相」은 곧 「無起」이고, 「無起」는 곧 「無滅」이라<sup>96)</sup> 한다.

「無起」·「無滅」은 心의 自性내지 本性的 不生義를 提示한다. 이러한 脈絡에서 「無住」·「無相」·「無念」은 絶待의 法으로서 三而一이고, 一而三이며, 絶待境地의 道「理」에 通「達」하는 本性임을 提示한다.

「心迷則此岸, 心悟則彼岸」·「心邪則此岸, 心正則彼岸」(《金剛經六祖口訣序》)라 하고, 「凡夫即佛, 煩惱即菩提」·「前念迷即凡夫, 後念悟即佛」·「前念著境即煩惱, 後念離境即菩提」(《壇經》, 般若品)이라 하여 轉悟의 相即義를 提示한다.

「邪」·「正」·「此岸」·「彼岸」·「凡夫」·「佛」·「煩惱」·「菩提」·「迷」·「悟」·「著」·「離」는 待而絶待의 相即義에 있어서 轉悟의 待法내지 悟法인 故로 一異·是非의 住著에 所屬되는 名相에 滯累되지 않는다. 이러한 相即義는 「迷即佛是衆生」·「悟即衆生是佛」(《六祖口訣》)에서 不住一異相義로 提示된다. 有所得心의 對象내지 內容으로서 「衆生」·「佛」을 意味하지 않고, 轉悟의 法으로서 「衆生」의 「佛」·「佛」의 「衆生」이라는 相即義가 提示된다.

이러한 相即의 待法은 待而絶待의 轉悟脈絡上에 있으므로 相對의 立見에 墮하지 않는다. 따라서 相即義는 「人之本性」내지 「自性」을 여는 方式이고, 「道」를 開悟하는 無住·無相의 方式을 意味한다. 「自性」의 自悟·直了에 있어서 「無住」·「無相」의 相即義는 無媒介·無相對·無辨證의 待而絶待義를 實現하게 하는 「本」이고 「體」라 할 것이다. 이러한 無住·無相義는 「自性」의 「自如」를 實現하는데 그 「本」·「體義」가 된다고 보겠다.

「眞如本性」의 「念」은 「眞如」·「念」의 「體」·「用」相即義로서 不離·不隔의 直「念」을 意味한다. 또한 이러한 「念」義에 依해, 「自性」의 「自如」實現上 「無住」·「無相」을 攝堪하는 「無念」의 「宗」義가 提示된다.

36) 《金剛經》無得無說分第七의 「無爲法」義에 關한 《六祖口訣》.